"들은 말 들은 데 버리고 본 말 본 데 버려라"

뜻: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아무 데서나 옮기지 말고, 입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침묵 · 비밀 · 신중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들 은 ∨ 말 ∨ 들 은 ∨ 데 ∨ 버 리 고
본 ∨ 말 ∨ 본 ∨ 데 ∨ 버 려 라

2단계 따라 쓰기 옅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들 은 ∨ 말 ∨ 들 은 ∨ 데 ∨ 버 리 고
본 ∨ 말 ∨ 본 ∨ 데 ∨ 버 려 라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ㄷㅇ] [ㅁ] [ㄷㅇ] [ㄷ] [ㅂㄹㄱ] [ㅂ] [ㅁ] [ㅂ] [ㄷ] [ㅂㄹㄹ]

웹에서 보기